<2018년 7월 15일 주일말씀>

모르고 못해서 실패한다

본 문 이사야 56장 7절

『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
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
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
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
일컬음이 될 것임이라』

누가복음 3장 8-9절

『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
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
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
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
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
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』

1. <못하는 것>과 <모르는 것>은 다르다.

2. 잘하면 실패하지 않는데, 못해서 실패한다. 그리고 몰라서 실패한다.

3. 잘하면 불가능한 것도 되고, 잘못하면 될 것도 안 된다.

4. <잘하겠다는 정신>을 가지고 해야 된다.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, "늘 잘해라. 늘 잘하면 잘 되니, 잘해라." 하셨다.

5. 잘하려면 심정을 다하고, 정신과 생각을 쏟고,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.

6. <잘할 수 있는 능력>은 누구나 있다. 고로 잘하려고 하면, 잘 된다.

7. 작든지 크든지,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. 잘못하면 안 된다.

8. <잘할 수 있는 능력>은 다 있는데 '얼만큼 심정을 다해서, 얼만큼 신경을 써서, 얼만큼 생각을 잘하고 하느냐'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.

9. 한 번도 안 해 봤어도, 잘하면 잘 된다.

10.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, "자꾸 나를 찾지만 말고, 잘해라. 잘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." 하셨다.

11.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대로 잘하면,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. <말씀>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다.

12. <말씀 실상 세계>다. <말씀>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니, 우리가

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.

<전환> 기도에 대한 말씀

13. <기도>는 '드리는 것' 이다.

14. <기도>는 '기도를 들어줄 주체' 에게 하는 것이다. <기도를 들어 줄 만한 존재자>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,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안 된다.

15. <하나님께 드리는 것>이 '기도' 다.

16. <기도>는 '호흡' 과 같이 중하다. <기도>를 안 하면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되니, 병든 자가 된다.

17. 기도는 생활 가운데 늘 해야 된다.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특별한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. 자기 위치, 자기 환경, 자기 여건과 상관 없이 해야 된다.

18. <기도>는 깊이 해야 된다. 진실하게 해야 된다.

19.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도 좋아하신다.

20. 기도하면, 100% 잘된다.

21.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늘 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.

22.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,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된다.

23. <하나님의 것>을 두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.

24. <조건, 대가>다. 절대적으로 조건을 세워서 기도하면, '하나님의 뜻' 이 이루어진다.

25. <모든 선과 의의 기준>을 세워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, 하나님은 해 주신다. 개인, 가정, 민족, 세계적인 것까지도 해 주신다. 고로 기도가 그렇게도 크다.

26. 기도할 때는 네 가지 순서로 해야 된다. 첫째는, '감사' 다. 두 번째는, '회개' 다. 세 번째는, "하나님! 성령님! 주님!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." 라고 해야 된다. 네 번째는, '간구' 다. 자기에게 해 달라고 해야 된다. - 이 네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된다.

27.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, 조건을 세우고 할 일을 하고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도 좋아하신다. 왜? 줘야, 뜻이 이뤄지기 때문이다.

28. <큰일을 할 때>는 '큰 기도' 를 해야 된다.

29. <큰일을 두고 큰 기도를 하는 것>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돈을 드리는 것과 같다. 큰 물건을 살 때는 큰돈을 내야 되듯이, 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려야 된다.

30. <큰일을 할 사람들>은 '큰 기도'를 해야 된다. 선생도 70일 동안 굶으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정성을 들여 기도했다. 그 기도가 그렇게 컸다.

31. <하나님의 심정>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.

32. 간절히 간구하고, 원하고, 바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. 그리고 하나님은 <눈물의 기도>를 들어주신다.

33. 깊이 기도하면,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된다.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, 하나님도 감동을 주시며 "내 마음이 그러하다." 하고 말씀해 주신다.

34. 기도해서 받을 것을 받고, 갚을 것을 갚고,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.

35. <간절한 기도>, <진실한 기도>다.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면, 하나님은 들어주신다.

36. <회개>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잘못을 알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.

37. <회개>로 인해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. <회개>로 인해 천국에 가느냐, 못 가느냐가 좌우된다.

38. <죄>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. 고로 죄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. 죄를 지었으면,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된다.

39. <죄지은 것>을 잊어버리면, '회개'를 못 한다. 잊으면, 죽는다.

40. <죄>를 짓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. 바로 회개해야 된다.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, "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라." 하셨다.

41. <회개>는 빨리, 즉시, 바로 해 버려야 된다.

42. <죄>는 빨리 청산해 버려야 된다. 왜?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탄, 마귀,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이다. <죄>에 대해서 경히 여기면 안 된다.

43. <구원자>는 '죄'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. 세상을 구원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.

44. <죄 문제>를 해결해야, 구원이 된다.

45. <메시아>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다. 어떻게? 용서해 줌으로 구원한다. <용서>하면, 구원이 된다.

46. <주>는 무조건 용서해 버린다. 용서해서 구원시킨다.

47. <메시아>는 '죄를 용서할 권세'가 있다.

48. <죄>를 숨기면 안 된다. 자꾸 숨기면, 원자 폭탄 터지듯이 죄가 터지고 만다. 고로 <죄>는 꼭 회개하고 청산해야 된다.

49. <회개>는 '깨끗이 하는 것'이다.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 듯이, 회개는 깨끗케 하는 것이다.

50. <꿈>에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었든지, 몸이 더럽든지, 혹은 구정물이나 흙탕물 등 각종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을 보이면, 이는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. 그리고 <깨끗한 것>을 보이면, 이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.

51. 성경에 보면 "죄는 사망이다. 죽음이다." 했다. (롬 5:12, 6:23) 또한 "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었느니라.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었느니라." 했다. (롬 5:12-17). <죄>를 지으면 죽은 것과 같다.

52. <죄>를 청산해야 '부활'된다.

53.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자기 마음을 다 터 놓고 이야기해야 된다.

54.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. 그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

성자께서 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.

55. 특별히 도둑질을 안 했어도, 이성 문제가 없어도, 살인을 안 했어도, 하나님의 계명을 범치 않았을지라도 죄가 있다. <할 일 못하는 것>이 '죄' 다.

56. <각종의 죄>가 많다고 해서 너무 의식하고, 죄의 노이로제에 걸리면 안 된다.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, "죄를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. 죄를 다스려라." 하셨다.

57. 주가 죄를 용서해 주면,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. 용서했는데,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.

58.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,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은 다시 살아났다.

59. <죄>로 인해 지진, 태풍, 홍수, 가뭄 등 자연을 통해, 혹은 사고를 통해 각종 심판을 받았다. 사람들은 "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, 파도가 치는 것이지." 하지만, 죄로 인해서 받은 것이다.

60. 하나님은 '죄' 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. 그냥 두면 시대가 다 죽어 버리니, 하나님은 꼭 심판할 것은 심판하신다.

61. <회개기도>를 꼭 해야 된다.

62. <회개기도>를 해야 죽음에서 살아나고, 육신의 병도 낫고,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. 회개해서 죄가 없으니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. 죄 있는 상태에서는 축복을 안 줍니다.

63. 기도하면, 하나님과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, 뇌로 생각나게 하신다.

64. 깊이 기도할수록 강도가 강해져서 확실히 느껴지고, 감동이 와닿는다. 그러다 더 깊이 기도하면, 뇌 화면으로 그 상황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. 거기서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영이 직접 영계로 가서 보기도 하고, 육계의 지상영계에 가서 보기도 한다.

<말씀 마무리>

65. 무엇이든지 잘하면 잘되지만, 잘못하면 안 된다.

66.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, 정신을 안 차리고 해서 실패한다.

67.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, 여러 번 자꾸 해 봐야 된다.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, 연구를 해야 된다.

68. <신앙생활>도 잘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. 못하는 사람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, 정신을 차리지 않은 것이다.

69. 죄를 짓고서 자꾸 숨기면 안 된다.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. 회개

하면, 부활되고 산 자가 된다.

70. 기도는 대화다.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대화다.

71. <기도>와 <회개>가 그렇게도 좋다. 자기가 해 보고서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야 된다.

72. <기도>는 서로 화평해지고, 가까워지고, 정이 통하는 것이다. 이것이 '대화의 기도'다.

73. <회개>는 형제들끼리도 해야 된다. 서로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.

74. <풀어 버리는 삶>을 살아야 된다. <풀어 버리는 삶>을 살아야 과거에 수고했던 것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이상세계가 일어난다.

75. 알고 행하면 성공한다. 승리한다.